

# 임실치즈 산역사 '한눈에'

### 역사문화공간 준공... 지정한 신부 샵터 · 최초의 치즈공장 등 복원 완료

임실치즈의 50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가 최초로 임실치즈를 탄생시킨 역사적 공간이 재탄생됨에 따라 임실치즈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임실군은 성거리 상삼마을(구)치즈공장을 재탄생시킨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을 마쳤다.

이날 준공식에는 심 민 군수와 문영두 의장, 지정환 신부를 비롯해 살동읍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임실치즈 50년사를 기념하고, 역사문화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실치즈역사문화공간은 1967년 지정환신부가 최초로 임실치즈 제조에 성공하고, 정환치즈와 성가치즈를 생산한 치즈공장이 있던 자리에 새롭게 재탄생했다.

이곳은 임실에 산양을 보급하고 산양유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임실산양협동조합이 창립된 곳이기도 하다. 산양협동조합은 현재 임실치즈농협으로 성장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군은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사업



임실군이 지난 27일 임실 치즈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인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임실치즈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임실을 성거리 377번지에 위치한 이 공간은 당시 지정환 신부가 거주하며, 사무실로 활용하던 주택을 리모델링했으며, 철거됐던 구 치즈공장(72㎡) 1동을 복원해 치즈숙성을 위한 숙성실(토표, 21.8㎡) 정비와 함께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1동을 신축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지정환 신부는 "임실치즈를 처음 도입할 당시만 해도 마땅한 소득자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많이 매우 좌절하고 어려웠는데, 오늘

날에 와서는 치즈가 임실 최고의 대표산업으로 육성되는 걸 보니 감회가 남다르고, 매우 뿌듯하다"며 "특히 임실N치즈축제로까지 발전시키고,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명성을 얻게 돼 내가 바라던 꿈과 희망이 이뤄진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앞으로 이 공간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연계된 핵심 관광코스로 만들어, 체험관광객들의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치즈산업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밥상 전쟁, 순창군 승기 잡았다

###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활용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개발한 'The 건강한 밥상'이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활용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표준식품성분데이터베이스 활용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먹고 있는 식품의 원료부터 식탁에 오르는 음식까지 영양성분을 분석해 기록한 데이터베이스의 학술 및 산업적 활용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했다. 국내 우수 식품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개발한 'The 건강한 밥상'은 순창의 건강한 농특산물을 활용해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식단을 수록한 책자다.

당뇨 예방식으로는 보리수수밥, 돼지감자잡곡밥, 호박당근볶음면, 당뇨

비빔밥, 공현미죽 등 20개 식단이, 고혈압 예방식단으로는 두릅버섯밥, 냉이메주공밥, 삼채잡채, 두릅메밀쌈, 돼지고기부추전골 등 총 19가지 식단이 수록돼 있다.

또 요리실습은 물론 1인분량 칼로리, 저나트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식단과 식문화에 대해 쉽게 배우고 실천해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발식단은 영양성분의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만들어 공신력도 확보했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The 건강한 밥상'의 전국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군이 활용하는 각종 힐링건강 교육사업에 'The 건강한 밥상'을 활



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건강장수연구소는 힐링문화도 농교류 프로그램중 건강한 먹거리 실습시간에 이 책자를 활용해 도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건강장수연구소 문광원 박사는 "The 건강한 책자는 자신이 우리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로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면서 "책자 발간 이외에도 건강장수연구소가 대한민국의 힐링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어린이 위한 '꼬꼬마지도' 눈길

### 남원시 여성청소년과 제작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 유해환경지역 등 표기 지도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 여성청소년과는 2017년 1년에 걸쳐 사회적약자 보호 및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뛰놀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꼬꼬마지도'를 제작했다.

꼬꼬마지도는 꼬마들의 안전과 꼬마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지도로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유해환경지역을 표기해 만든 지도이다.

꼬꼬마지도는 시내권 주요 초등학교 7개소를 선정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친근한 경찰캐릭터를 활용해 지킴이집 주소 및 전경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시민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주변 곳곳을 다니며 우리학교 주변에는 아동안전지

킴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킴이집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지도제작에 참여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곳곳에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직접 와보니 더욱 정확히 기억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꼬꼬마지도는 남원경찰서 홈페이지 홍보마당 '꼬꼬마지도'에 전체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각 학교 별로 게재돼 있으며, 이는 QR코드로 변환돼 스티커로 제작, 아이들의 가방 및 학용품 등에 부착 가능한 형태로 배포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 아리

### 농어촌공 남원, 내 고향 물살리기 자매결연학교와 환경정화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지난 28일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내 고향 물 살리기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남원지사 직원과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남원의 젓줄인 '요천'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 주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학생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근 지사장은 "바쁜 학업 중에도 시간을 내서 환경정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면서, "즐거움 마음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지사는 지난 2013년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와 내 고향 물 살리기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합동으로 환경정화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내 고향 물 해설가'를 초청해 전 교생을 대상으로 "물의 중요성" 알리기 위한 현장 교육활동도 실시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어린이 수어제 개최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 도모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어인구의 자변화대를 위한 '제2회 임실군 어린이 수어제'가 열렸다.

한국농어인협회 전라북도협회 임실군 지부 및 임실군수어터센터는 최근 임실문화원 공연장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 어린이 수어제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린 어린이 수어제 행사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청각장애인들과 교류의 장이 됐다.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배움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지난 1월부터 준비하고, 기획한 행사로 임실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수어동아리 등 5팀이 3월부터 배워왔던 수어실력을 수어노래를 통해 전달했다.

심 민 군수는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임실지역의 수어 보급·발전과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장애를 넘어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 30일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돌입

임실군이 재난대비 통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군민들의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임실군의 주관 하에 임실경찰서와 임실119안전센터, 제7733부대 2대대, 한국전력 임실지사, (주)일진제강,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8개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첫날인 30일에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11월 1일에는 지진대응 토론 및 현장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현장훈련은 임실초등학교 지진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8개 기관단체 및 임실초등학교 전교생 400여명 등 총 470여명이 훈련에 참가, 유관기관 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실시된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임실시장에서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 폭설예방 등 안전문화 캠페인도 진행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8일간의 일정 마무리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장종민 의원의 대표발의한 "임실군 장수노인 장애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안전을 의결 처리했다.

특히, 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3일 진행된 군정질문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군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문영두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 군정질문에서 지적되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과 "새해 예산안 심사와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 밖의 중요 안전 심사 등 을 한해에 마감할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판주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